

# 로열티 지급액 기하급수적 증가

한국은행, 상반기 20억7040만달러 달해 ... IT제품 수출 급증으로

휴대전화·반도체 등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으로 외국에 지급하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로열티)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6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외국에 지급한 금액은 24억7040만달러로 집계됐다.

2004년 1-6월 20억2960만달러보다 21.7% 증가한 것으로 2조5000억원이 넘는 돈이 6개월 사이 로열티로 추가 지급됐다.

로열티의 국외 지급액은 1999년 26억6000만달러에서 2000년 32억2000만달러로 급증했으며 2001년 30억5000만원, 2002년에는 30억달러 등으로 증가세가 주춤했다.

그러나 IT 관련제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2003년 35억7000만달러로 다시 큰 폭으로 늘었으며 2004년에는 44억5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5년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지급된 국외 로열티가 2004년 상반기를 훨씬 웃돌고 있어 연말에도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IT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커지면서 해외 첨단 IT분야의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로열티의 국외 지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로열티 수입은 2005년 상반기에 9억3950만달러로 19.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05년 상반기에 지적재산권 사용료 부문의 적자규모는 15억3090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2억6000만달러 악화됐다.

<화학저널 2005/08/17>